

<2012년 9월 12일 수요일>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닦아라

본 문 창세기 1장 26-28절

사무엘상 16장 7절

빌립보서 2장 5절

* 수요일의 주제는 설교를 시작하면, 설교자가 영상을 보며 말해 줍니다.

*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스처 코치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설교자가 때에 맞춰 제스처를 넣으면 됩니다.

단,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제스처의 목적은 '설교 내용의 빠른 이해'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 말씀의 주제를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외쳐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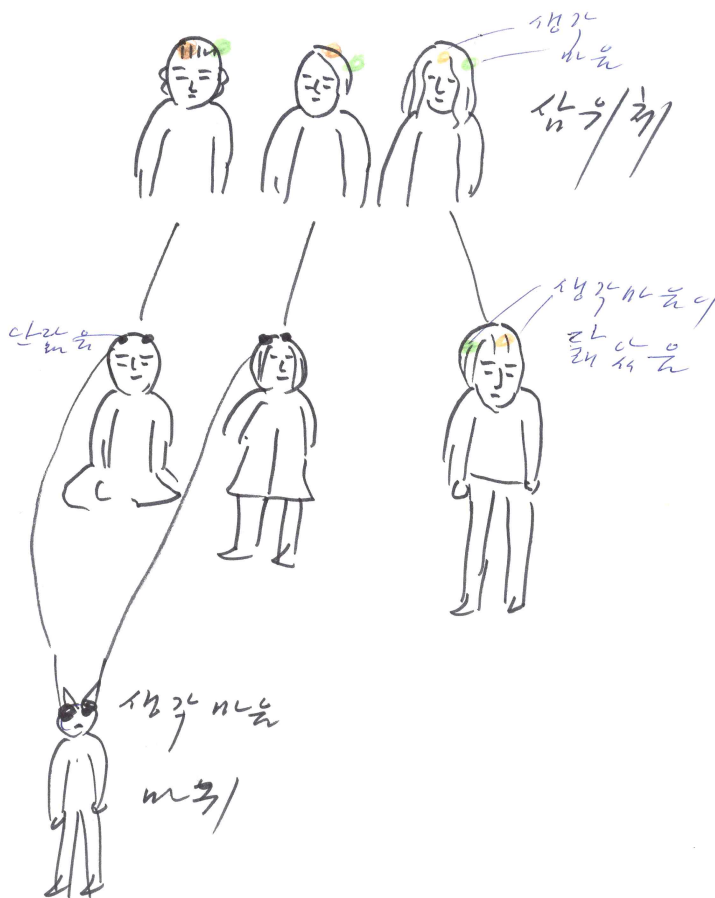
<영상1>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닦아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인간을 그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눈, 코, 몸, 키 만지면서) 그리고 인생들을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내어 인간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의 말씀을 듣고 삼위일체의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어 살게 하셨습니다. (양손으로 세상을 표현하고, 메시아는 옆에서 있으니, 손짓하기) 그렇게 변화되어 삼위일체를 닮은 자들의 영만 천국에 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기 몸을 가리키면서 표현하고, 손을 위로 올리고 천국을 손짓한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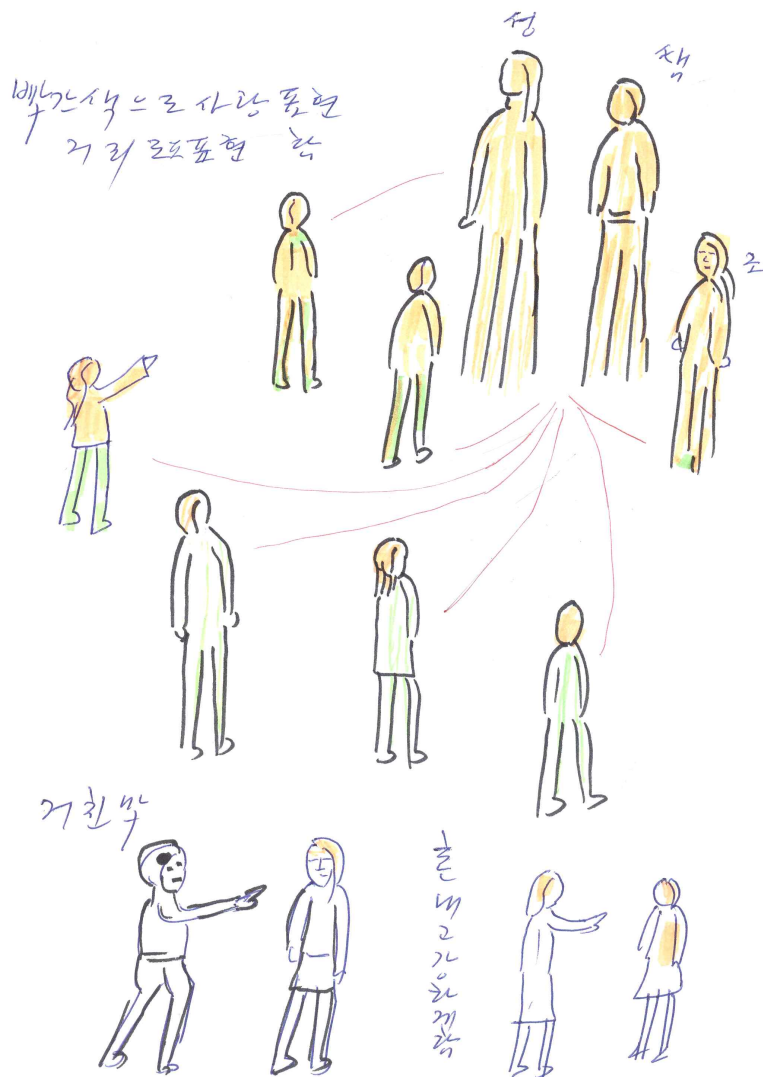
‘동물’도 새끼를 낳으면 제 어미를 닮고 제 아버지를 닮습니다. 안 닮으면 멀리하고 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자기를 낳은 부모를 닮게 됩니다. 구조와 모양과 형상은 닮았어도 부모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은 닮기가 어렵습니다. 고로 자식이 부모와 마음이 안 맞아 부모에게 혼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사람도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머리, 눈, 코, 입, 귀, 손, 발 등 모양과 형상과 구조는 삼위일체를 닮았습니다. (해당 부분 가리킴) 그러나 삼위일체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제대로 닮지 못했습니다. (머리 가리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하나님과 성자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가장 빨리 삼위일체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게 됩니다.



인간이 얼마나 성자 주님과 분체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만큼 빨리 성자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닮게 됩니다. (사랑은 하트로 표현, 성

자의 마음과 정신은 손가락을 자기 머리에 댄다) 선생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은 것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형상과 모양과 구조는 잘생기고 멋있고 삼위일체를 닮았는데, 마음·정신·생각·성격이 삼위일체를 안 닮아서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악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걸모습은 예쁘고 멋있고 모양은 아름다워도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선하지 못하고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강하면, 무섭고 싫고 멀리하게 되고 “저 사람은 걸모습과 속이 너무 달라.” 하며 피합니다. (악한 것 표현할 때 얼굴 인상 쓰고, 행동도 거친 것 표현) 고로 사람은 꺾어 봐야 안다고 합니다. <영상2 끝>

마음·정신·생각·성격이 좋은 사람끼리는 서로 가까이하고 이야기

도 편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그 분체도 사람들이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기 원합니다. 자기와 닮은 자를 가까이 대하고, 사랑하고, 이야기도 하며, 그를 쓰게 됩니다. 절대 시대 말씀을 귀히 듣고, 성삼위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삼위일체와 같은 마음과 정신과 생각으로 변화되어 그 혼체도 영체도 온전히 변화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성삼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동을 닮은 대로 그 영이 그에 해당되는 영의 세계로 갑니다.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창조주는 자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창조해 놓으셨다. 그리고 몸부림쳐 삼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은 자의 영만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삼위의 마음을 닮지 않은 자들이나 닮다가 만 자들의 영은 그 행위대로 흑암으로 사라진다.” 하셨습니다. <영상3 끝>



하나님과 성자 주님께서 그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게 하시고 사명을 주어 이 시대에 보낸 자를 날마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가 전하는 성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성삼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위를 닮아서 혼도 영도 (혼도, 영도 할 때 자기 손가락 하나씩 펼치면서 표현) 주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고로 신랑 되신 성자 본체가 재림하실 때 주님을 꼭 맞아 휴거되어야 합니다.

성자 본체를 통해 성삼위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위를 닮아야 늘 하늘과의 사랑이 뜨겁게 이루어지고, 하늘과 교통하고, 매일 보람과 희망을 이루며 아름답고 기쁘게 살게 됩니다.

지금부터 성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손을 올리고) <영상4>

<성자의 말씀>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돌을 정으로 쪼아 조각하여 (돌을 쪼는 모습)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몸부림이 필요하겠느냐. 힘만 있고 몸부림만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이 있어야 된다. / 이와 같이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닮으려면, 말씀을 듣고 행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힘써야 하고, 저마다 기술이 필요하다.

<영상5 끝>

사랑과 선의 근본자인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닮지 않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세 분 손가락을 세면서

표현하고, 마음과 생각은 손가락을 자기 머리에 대기 / 천국은 하늘 손짓)

세상에서도 자기 마음·정신·생각과 안 맞으면 같이 대화하기 싫고 가까이 살지도 못한다. 섭리사 안에서도 마음·정신·생각이 맞을 때는 서로 대화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살다가도 마음·정신·생각이 변해서

안 맞으니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너희 마음·정신·생각·행위가 ‘사랑’과 ‘선’으로 천국의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 성자와 닮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올 수 없다. 어떻게 닮겠느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매일 행하면 닮아진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매일 행하면, 너희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변화되어 성삼위와 닮게 된다. 나 성자의 마음 닮기다. 나의 육으로 쓰는 분체의 마음 닮기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조각 작품이나, 그림 작품이나, 집이나, 정원을 만드는 자가 얼마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미쳐서 좋아하고 기뻐하며 하는지 아느냐. (얼굴은 웃으면서 몸으로는 희망적인 표현)

너희도 영원히 살게 만들어 놓은 ‘영혼의 작품’을 희망에 차서 기쁨으로 만들어라! 너희 마음을 나 성자의 마음으로 만드는 것에 미쳐 좋아하며 만들어 너희 영을 구원시키고 영원히 썬라!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라! 너희 육신의 마음이 나 성자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나와 사랑하며 살면서 만드는 것이다. <영상6 끝>

사람의 육신의 모양과 형상은 아름답고 멋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이 약하거나, 게으르거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비판적이거나, 형제를 헐뜯는 등 각종으로 악한 마음이라서 그것이 문제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인생들을 버려두게 된다. 사람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기 마음과 행실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매일 매시간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야 된다. 자기가 자기에게 엄히 명령하고 지시하고 자기를 주관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못 다스리면, 순간 나쁘게 변질된다. 마음이

변질되면 ‘마음의 죄’를 짓게 되고, 변질된 마음에 따라 행하면 ‘행동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선하게 다스리기 힘들다. 위대한 전능자와 나 성자의 말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하고 회개하며 다스리는 것이다. 풀도, 나무도, 물도, 짐승도 풀, 나무, 물, 짐승 등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듯,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7>

월명동을 만들어 놓았어도 수고하며 풀과 나무와 건물들을 다스리니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월명동 자연성전을 관리하고 다스리듯이 모두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잡초를 베고, 가시나무를 캐내고, 물이 썩으면 청소하고 깨끗한 물을 다시 채우고, 나무가 자라면 가지를 치고 자르며 다스리듯이,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행실을 다스려라! <영상 7 끝>

전능자 하나님도, 나 성자도, 나의 분체도 너희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보고 택하고 쓴다. ‘중심을 본다’ 함이다. ‘마음을 본다’ 함이다.

(머리에 손가락 대기)

강한 마음을 먹고 진정 기도하며 (손을 가슴에 갖다 대고 주먹을 힘차게 쥐면서 강한 마음 표현,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힘차게 표현) 나 성자의 마음과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늘 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고 기도하여라. 각자 자기 개성으로 자기 마음을 어떻게 만들지 깨닫고 행해야 된다.

나 성자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나의 분체를 통해서 주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고 행하여라. 몸을 껏고, 마음을 껏고, 생각을 껏고, 행실을 껏아 다듬기다. (몸에 손을 대고 몸을 껏는 표현, 가슴에 손을 대고 마음과 생각을 껏는 표현, 손을 움직이며 행실을 껏는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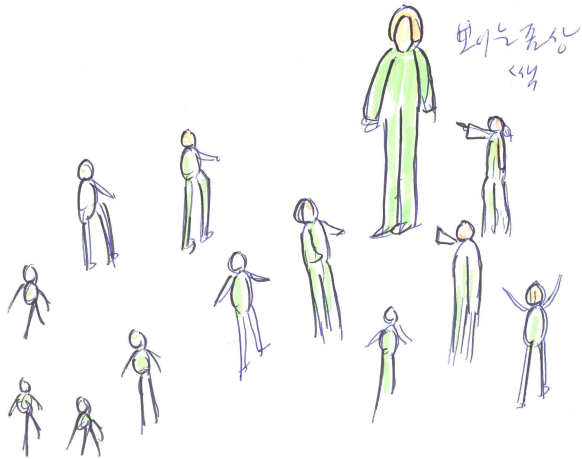
너희도 너희 마음을 나 성자의 마음으로 만들려고 수고하기도 했지만, 적당히 만들어 쓰는 자도 있고, 아예 다 만들어 쓰는 자도 있다. 완전하게 만들어야 나 성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 나와 밤낮으로 통하게 되고, 나와 가까이 사랑하게 되고, 나의 마음이 되어 사람들과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니 그에게 마음 놓고 일도 맡기게 된다.

자기 사명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대하면서 하게 되는데 너희 마음을 나 성자의 마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형제들과 말로도 부딪히고 심정으로도 부딪히고 행동으로도 부딪히게 된다. 고로 순간마다 스스로 조심하고 근신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며 해야 된다.

이 시대에는 ‘표상’ 이 있으니, 그 표상을 보면서 만들면 빨리 만들어진다. 나 성자가 표상이다. (오른손 엄지를 들어 ‘최고다’ 표현) 나의 분체가 보이는 표상이다. (오른손이나 왼손 검지를 들어 표현) 고로 그를 쳐다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개성대로 만드는 것이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8>

너희를 구원하는 표상과 마음이 멀고 생각이 멀면,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 (마음과 생각을 말할 때는 항상 손가락을 머리에 갖다 맨다. / ‘멀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 양손이나 한 손을 뻗고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표상의 마음을 알고 정신을 알고 생각을 알고 그를 가까이 대하면서, 자기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그같이 만들기 위해 마음먹고 행하는 것이다. 섭리사에서 나 성자와 함께, 보이는 내 육인 나의 분체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어도 내 분체와 마음과 생각이 다른 자들이 많다. 내 육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니, 나 성자의 마음과 생각과도 닮지 않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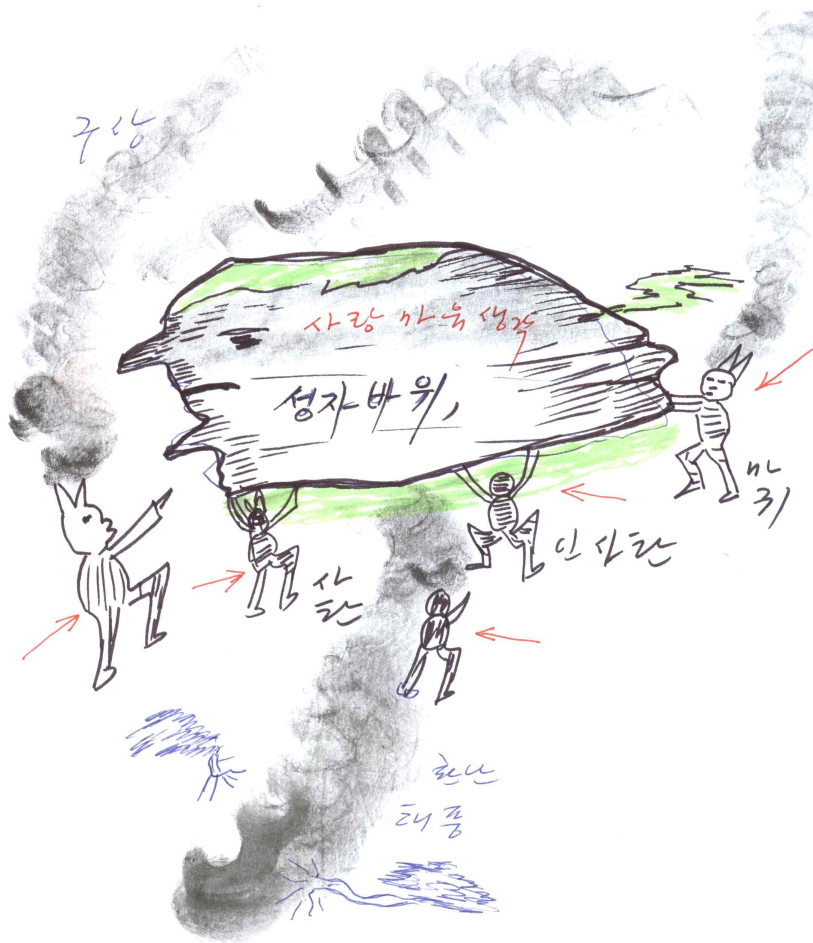
나 성자와 내 분체의 마음 · 정신 · 생각 · 행실을 닮은 자만 나 성자가 재림할 때 나와 일체 되어 그 영이 신부로서 하늘나라로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휴거된 영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땅에서 휴거의 육으로 살게 된다. <영상8 끝>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자기중심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 살지 말고, 나 성자의 욕을 표상으로 세워 보여 주었으니 그를 따라 나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 살아라. 그는 나의 욕으로서 생명권에 온전히 있으니, 너희는 그를 닮아야 된다. 그를 닮고자 해야 닮게 되고, 행하고자 해야 행하여 닮게 된다. 마음과 정신과 생각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자는 아직도 내가 세운 표상과 일체 되지 않고, 그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로 나 성자와도 일체 되지 못한 채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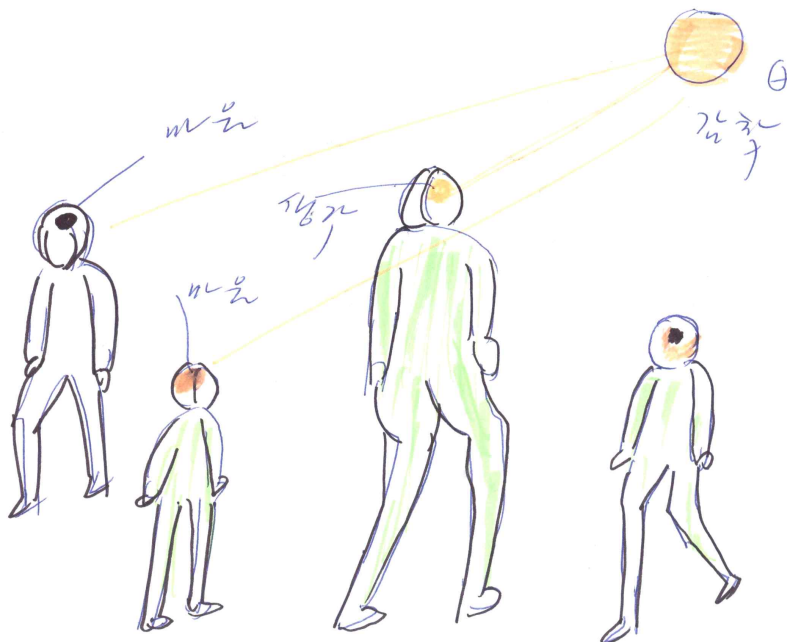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9>

절대 나 성자를 닮아서 행하는 자는 그 마음·정신·생각이 월명동 성자바위같이 묵직하여 사탄과 인사탄이 어떤 유혹을 해도, 환난과 시험의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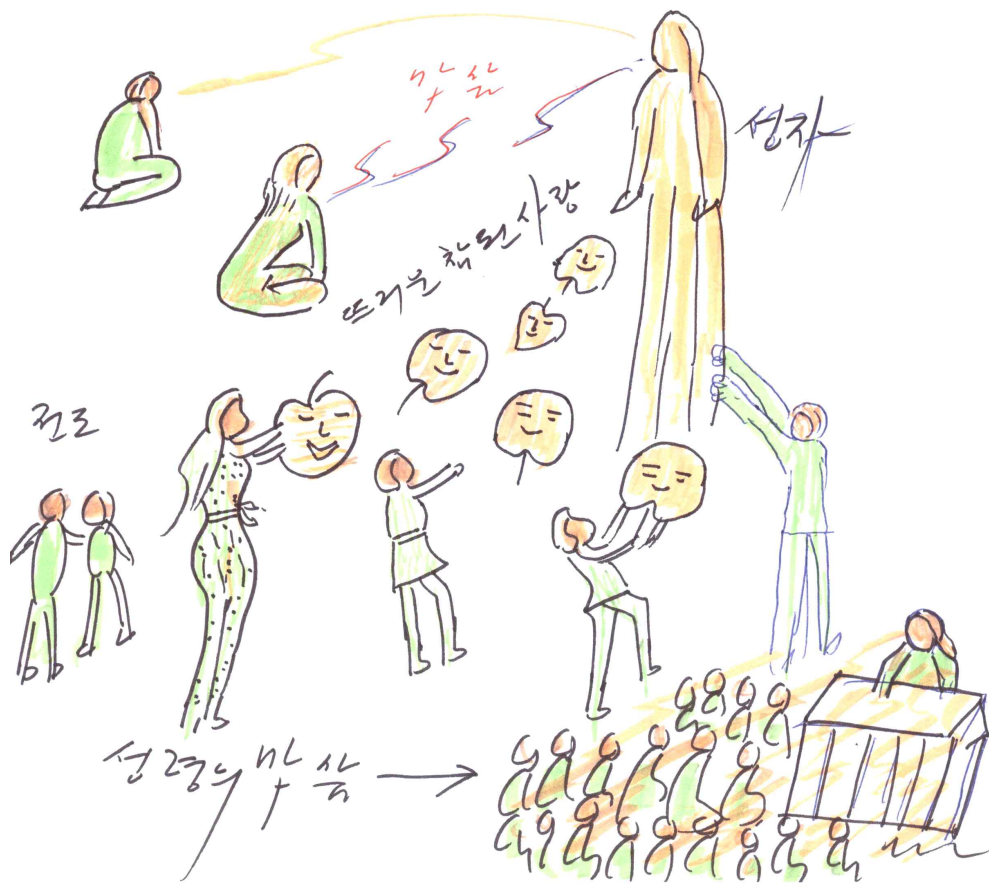
나를 닮은 나의 분체를 통해서 너희 마음을 나 성자의 마음으로 만들어 나를 닮아 살기를 축복한다. 나를 닮아야 마음껏 사랑하며 쓸 수 있다. 만드는데로 변화된다. 빛난다.

인간의 마음·정신·생각이 얼마나 중한지 깨닫고 알아라.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정신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얼마나 중한지 깨달아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도 너희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스스로 너희 마음을 감찰하여라. 너희 마음에 나 성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나 성자는 너희 마음·정신·생각을 보고 너희에게 상징적으로 간다. 사람이 마음·정신·생각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며, 마음·정신·생각 때문에 그 영이 지옥에 가기도 하고 천국에 가기도 한다.

뜨거운 사랑과, 말씀과, 성령과, 기도와, 실천으로 나 성자의 마음을 닮게 된다. 나 성자를 닮아라. 특별 계시다. 오늘부터 시작하자! 나쁜 마음, 악한 마음, 형제를 미워하고 악평하며 힐문하는 마음은 하나님도 나 성자도 내 분체도 심판한다.



어서 나 성자의 마음과 생각을 닮고, 나의 분체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라. 그리고 나 성자와 살자!

너희의 사랑, 성자다. **살롬!** (손 흔들기)